

꿈은 이루어진다

글 김영일(국가청렴위원회 주무관/수필가)



여기 눈보라를 뚫고 꽃피운 한송이의 설중매(雪中梅)가 있다. 그 꽃은 고난 속에서 피어났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고고하다. 그 뜻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기 위해 필자의 아호를 설중매라고 쓰고 있다. 배고픈 시절, 친구가 먹고 있던 수제비 죽이 먹고 싶어 군침을 흘리고 있을 때 누군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수제비 죽이나 실컷 먹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었다.

가난 때문에, 초등학교 졸업 후 생필품 가게 배달원과 신발 공장 종업원으로 전전하며 주경야독을 하다보니 라면 사먹을 돈이 없어 찬물로 굶주린 배를 채우고 있을 때, 월급 많이 주겠다고 부패 행위를 강요하는 부사장(사모님)의 청을 거절하였다가 회사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늦은 밤, 하숙집 부엌 귀퉁이에 쭈그리고 앉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전기세 많이 나온다는 주인집에서 전기 불을 꺼버리는 등 시련을 겪기도 했지만 7전 8기라는 힘겨운 도전 끝에 마침내 국가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 공무원에 임용하여서도 자투리 시간을 이용한 꾸준한 자기 개발에서 얻어낸 아이디어로, 공무원 제안상 6회 수상과 함께 효행공무원, 부패방지 우수공무원, 베스트 지식인 등으로 선정되어 통산 10여 차례 표창을 수상했다.

그리고 부족한 공부가 하고 싶어서 주경야독으로 한국방송대학교(89학번)를 졸업하고 명문대학교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27기)에 진학하여 광고홍보학을 전공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국가 정책도 새로운 이론과 홍보기법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봉사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때라는 생각에서다. 이러한 생각은 남보다 앞서가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철밥통으로 불리우던 공무원 사회에서 더 이상 도태되지 않으려는 몸부림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랬다. 필자가 22년이라는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서 얻어낸 것이 있다면, 남들보다 앞서

가야 한다는 생각 보다는 내 자신을 먼저 이겨내는 의지력을 길러 내는 것이었다.

또한 문학대회 심사 과정에서 항상 부정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년이란 오랜 연구를 통하여, 투명한 문학심사가 가능한 “온라인백일장시스템”을 고안하여 발명특허(10-0682487, 07.2.7)까지 얻어냄으로써 세계 최초로 각종 공모전에서 접수와 채점, 당선작을 인터넷으로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공모전 투명심사 시스템”을 선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결실로 인하여 필자는 (사)한국문학세상의 명예 이사장으로 추대되었고, 한국 문단의 셋별로 인정받게 되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정책방송(KTV)에서는 필자를 주인공으로 하는 ‘나의 성공노트’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방영하였고, 야후, 네이버, 다음에서는 화제의 인물로 선정하였다. 힘겨운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마침내 성공을 이루어 낸 것이 감동적으로 다가 왔기 때문이란다. 필자가 걸어온 힘겨운 삶의 이야기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작은 교훈과 용기를 줄 것이라는 주변의 의견에 따라 1970년대 배고픈 시절에서부터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가청렴위원회 주무관으로 성공하기까지 겪어야 했던 파란만장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자전 에세이 “차가운 곳에도 꽃은 핀다(한국문학세상 펴냄)”를 출간하게 되었다. 그러자 ‘방송대학 TV’에서는 필자의 저서를 담은 후면에세이-“하면 된다”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위성TV(OUN)로 방송함으로써 힘들게 공부하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들에게 잔잔한 감동과 용기를 주기도 했다.

이렇듯 인생의 체험을 통하여 독자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글은 읽는 이에게는 또 다른 삶을 개척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필자도 한때는 주경야독이 너무나 힘들어서 자포자기에 빠지기도 했지만 어느 수험생의 눈물겨운 합격수기를 읽고서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그것이 필자에게 성공을 이끌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

그랬다. 세상을 살다보면 모든 것이 쉬울 수만은 없었다. 그렇지만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면 필자와 같이 큰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지금도 어디선가 질병으로 고통을 받거나 나약한 의지력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 진다”는 신념으로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싶다.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진정한 성공을 기원한다. 卍